

배포 일시	2022. 11. 1.(화)		
담당 부서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469)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044-201-3470)
보도일시	2022년 11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화) 17:00 이후 보도 가능		

## 한-에티오피아·탄자니아 공간정보 분야 MOU 체결

### - 에티오피아·탄자니아와 토지행정 전산화 국가기본도 구축 등 협력체계 구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국토엑스포(11.2~4, 일산 킨텍스) 개최를 앞두고 11월 1일 오후 5시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장관 찰투 사니 이브라힘, Chaltu Sani Ibrahim),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장관 안젤린 마블라, Angeline Mabula)와 토지행정 전산화, 국가기본도 구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날 원 장관은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찰투 사니 이브라힘 장관,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안젤린 마블라 장관을 각각 만나 공간정보 분야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에티오피아와는 11월 1일 양자간 ‘공간정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토지 행정 전산화에 따른 기술, 공간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공간정보 관련 정부 정책, 제도 및 행정 경험 공유 등 공간정보 분야 협력 관계 구축

- (한-에티오피아) 이번 MOU 체결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업의 한-에티오피아 무상원조사업(ODA 사업) 참여 및 수행 활성화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민간기업 컨소시엄\*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본격적인 후속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LX-민간기업 컨소시엄 : LX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협력체계

- (한- 탄자니아) 탄자니아와는 공간정보혁신센터 건립, 공간정보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탄자니아가 국토부와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향후 공간정보 분야 MOU 체결로 이어져 '23년부터 추진되는 '통합토지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 성공의 새로운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
- 이번 공간정보 분야 협력체계 구축은 토지측량, 도시정보 전산화 등 데이터 구축사업부터 토지가치평가, 토지개발이용,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사업 등 도시계획·관리사업까지 패키지 해외진출의 성공사례를 남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원 장관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간정보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 될 것” 이라고 평가하면서,
  - 향후 대한민국이 공간정보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3일간 국내외 공간정보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11.2~4, 일산 킨텍스)를 개최하여 세미나 및 전시부스를 통해 공간정보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